



강진 김명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광양시, '광양만권중소기업연수원' 유치 총력

영호남 9개 지자체와 공동선언문 제출 등

광양시가 광양만권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광양만권중소기업연수원 유치를 위해 영호남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협복 광양시장은 최근 중진공 진주 본사를 방문해 이상직 이사장을 면담하고,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숙원사업인 연수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는 97,097명의 근로자와 4,443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나 연수시설이 없어 기업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

부와 중진공의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수원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치를 건의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광양만권중소기업연수원 "유치가 남해안 상생발전 촉진과 영호남 기업체 교류의 장으로 활용이 기대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공장배움터(러닝팩토리) 교육기관이 필요한 만큼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시는 광양만권중소기업연수원 유치를 위해 전남도지사와 도의회의원, 국회의원, 중소기업연수원장 등을 만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여수, 순천, 진주, 사천 등 9개 시장·군수가 참여한 남해안남중진발전협의회에서는 연수원 유치를 위한 광양만권 시도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18일 여수·순천·광양 3개 시 행정협의회에서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알렸다.

시는 연수원이 유치될 경우 광양 동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유치전략 마련을 위한 타당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진공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원은 중소기업연수원(경기 안산), 호남연수원(광주 북구), 부산경남연수원(경남 창원), 대구경북연수원(경북 경산), 글로벌리더연수원(강원 태백) 등 전국 권역별로 5개소가 있다.

중소기업연수원은 최고경영자과정, 스마트 융합, 기술·품질, 이력서 작성,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프로그램, 기업맞춤 연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육성에 기틀 마련



보성군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해럴드경제와 월간파워코리아가 주최한 '2019년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행정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국가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장에 기여해 온 자치단체와 인물·기업 기관 등에 수여되는 상이다.

보성군은 지난해 노후된 녹차탕

을 대신해 울포해수욕장센터를 신축하여 단일 요금제라는 획기적인 시책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입욕객이 92% 증가하여 약 12만 명이 다녀갔다. 수익은 5억 2천여 만 원으로 기존 대비 무려 77%나 증가했다.

특히, 단순 목욕시설이 아닌 종합 힐링 센터로 확실한 포지션을 가진 울포해수욕장센터는 3층 야외 노천탕에서 바라본 환상적인 뷰와 다양한 스파 시설로 올해 1월에는 전남도가 추천하는 여행지에 선정

되기도 했으며, 2월에는 한국관광공사 추천하는 스파 명소로 소개되기도 했다.

보성군은 올해 해수욕장센터 앞에 있는 보성해수욕장을 연계해 수산물잡기 체험과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비수기 없는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보성 계단식 접통차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중요농업유산 선정은 4수만에 이룬 쾌거로 민선기에 들어 역사성 입증과 계단식 차밭 조성 기술 및 지리적 특이성 등 기초자료 대폭적으로 보강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성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녹차 생산지로 전국 재배면적의 35%를 차지하며 면적당 소득이 쌀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성군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도전하면서 차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무료 영화상영·작가와 만남 진행

'낯선 자들의 땅' 상영·김병준 작가 초청 대화



스토피아로 그려낸 작품이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 지지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강하는 궤적에 갇힌 인물들의 비극을 기어코 확인하게 만들어 치기로 보일 위험이 없지 않다.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28일 오후 7시 두드림 영화관에서 '낯선 자들의 땅' 상영과 함께 '프로듀서 겸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영화 '낯선 자들의 땅'은 2018년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 진출했으며, 원진사고로 변해버린 고향마을을 배경으로 사고 지역을 벗어나려는 가족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전주국제영화제 김영진 프로그래머는 "햇빛 희망에 갇힌 근 미래의 공동체와 인간들의 아수라장을 다

으나 비판적 세계관을 거세게 밀어붙이는 감독의 연출에서 외면할 수 없는 진정성을 느끼게 된다"는 소감과 비평을 남겼다.

영화를 연출한 오원재 감독은 디자인과 영화를 전공했으며, 단편영화 '베드 보이'(2004), '나생관'(2014), '사냥'(2015)을 연출했고, 장편영화는 처음으로 '낯선 자들의 땅'을 연출했다. 시나리오를 프로듀서를 담당했던 김병준 PD와 같이 작업했는데, 김병준 PD는 현재 감독으로도 활동 중이며, 장편영화 '개똥이', '소시민'을 연출하였다.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낯선 자들의 땅'에서 프로듀서 겸 시나리오를 담당한 김병준 작가를 초청하여 시나리오 및 영화제작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관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상업 영화관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우수한 독립예술영화를 엄선해 소개하고 있는 두드림 영화관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국내외의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는 '화목한 무비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애니메이션을 위주로 '신나는 어린이극장'을 오후 3시에는 '실버·고전 영화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 두드림 영화관의 모든 상영은 무료로 진행되며, 기타 상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scmedia.or.kr) 및 창작지원팀(061-811-0218)에 문의하면 된다.

순천=황경석 기자

순천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미세먼지 저감·교통문제 해결 위해 매주 수요일 실시

순천시는 27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을 '순천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에너지 문제, 도심의 주차문제 등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대중교통 이용으로 완

화하고 시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순천시가 지정 한 날이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의 성공은 시민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민을 대상으로한 대중교통 체험수기 공모전, 친절기사 선발, 대중교통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민참여를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는 직원부터 '내가 먼저' 실천하겠다는 자세로 매주 수요일 시청사 주차장에 직원차량을 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시교통과 김재빈 과장은 "이번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시민 모두가 자동차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하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제안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예산 48억 원 확보

전국 최초 지급 가시화

함평군이 농어가수당 예산 48억 원을 확보하면서 전국 최초 농어가수당 지급에 청신호를 켜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이 1회 추경에 반영한 농어가수당 예산 48억 원 전액이 원안 확정됐다.

이로써 군은 지난 달 28일 농어가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날 예산도 확보하면서, 지역 8천여 농어가에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의 수당 지급을 목전에 두게 됐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족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서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 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시렁상품권)로 전액 지급한다.

협의 만료시한인 오는 4월까지 긍정 답변이 돌아오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어가수당 지급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함평=김광춘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점검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